

pip (주) 평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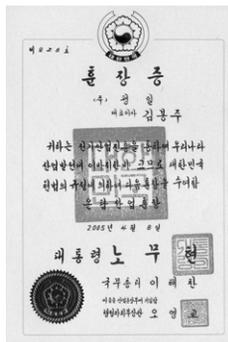
국내 중전기기 업계 선두로 도약하는 기업

(주)평일(대표이사 노관성)은 지난 1970년 평일산업주식회사로 설립되어 40년간 전력용 접속재 국산화라는 한 우물을 파온 전기계 대표기업이다. 또 우리나라에 폴리머 소재의 전력기자재 붐을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다.

1970년대 전력용 접속재라는 개념이 희박했던 시절 평일은 외국 제품을 수입해 국내에 공급하면서 이 분야에 첫 발을 디뎠다. 이후 평일은 오퍼상 형태로 제품을 공급하는 것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전력용 접속재 국산화에 앞장섰다.

1985년 경기도 양주에 양산 설비를 갖추고, 이 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 ELASTMOLD사와 기술제휴를 맺으면서 전력용 접속재 국산화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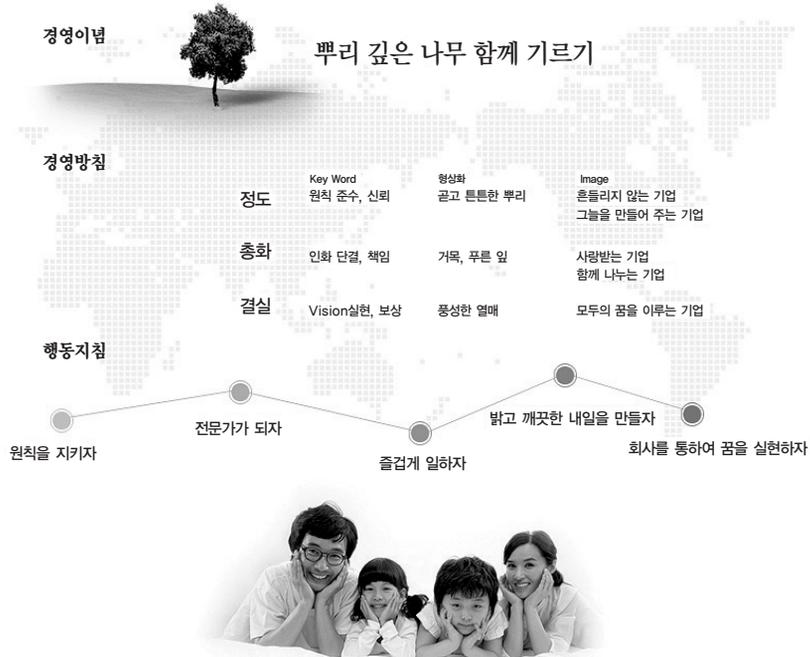
평일은 1989년 22.9kV 중단접속재 개발에 성공한 것을 시작으로 22.9kV 지상용 가스개폐기 예폭시 부싱, 배전용 폴리머현수애자, 배전용 폴리머피뢰기 및 COS, 직선 접속재, 개폐기 및 변압기 접속재 등 50종 300여개 품목에 대한 국산화를 2005년 모두 완료했다. 또 기존 사기에자를 대체할 수 있는 동시에 경제성이 뛰어난 폴리머애자를 본격 도입했다. 평일이 제품 국산화에 매진하면서 우리나라는 상당 규모의 수입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.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전기의 날 기념식(2005년)에서 은탑산업훈장을 수훈했고, 2006년에는 신제품인증의 날에 대통령상을 수상했다.





평일이 사업 분야를 확대할 수 있는 밑바탕에는 회사 설립 이후 모든 제품을 국내기술로 개발하겠다는 의지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. 평일은 50~60%를 차지하고 있는 한전의 비중을 시장구조와 제품의 다변화를 통해 점차 줄여나가는 것과 함께 명품 중전기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아시아권을 1차 목표로 해외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.

이와함께 시장의 다변화와 제품의 다양화를 통해 연평균 20%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함으로써 오는 2012년에는 연매출 1,000억원을 돌파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. 평일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들을 고객에게 선보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.



❖ 주요 연혁 ❖

- 2010 고체절연 일체형 수배전반 GD Mark, V-Check인증 획득
- 2009 접속단자 및 슬리브 UL인증 획득
- 2008 지상설치형 저압케이블 접속장치 개발
- 2005 맨홀용/핸드홀용 지중 저압케이블 접속장치 개발
- 2003 전력량계 형식승인(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)
- 2002 원자력 발전소용 전기관통구설비 개발
- 2001 유망중소기업선정(경기도)
- 2000 오백만불 수출탑 수상
- 1997 ISO 9001 인증획득 (K.Q.A)
- 1994 한국전력공사 기술지원 시범기업 선정
- 1987 미국 ELASTIMOLD사와 기술제휴
- 1974 케이블 접속재 국내 최초 외자 공급
- 1970 평일산업(주) 설립